



이른 더위를 식히는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18일 대학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의미 있는 문학 행사가 열렸다. 소설가 박범신 씨의 문단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그로부터 문학을 배운 제자들이 마련한 것. 이날 행사는 최근 동시에 출간된 선생의 장편소설 <더러운 책상>과 시집 <산이 움직이고 물이 머문다>와 출판기념회를 겸하는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다. 시집 출간은 그로서는 첫작업이다.

제자들이 열어 준 문단데뷔 30주년 기념 행사 행사를 치르기로 원래 계획했던 곳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하지만 박범신 씨가 이라크 전쟁 등 심란한 정국 상황을 들어 사양하는 바람에 레스토랑으로 변경됐다.

이문구, 조병화 선생의 별세, 김승옥, 임영조 선생의 와병 등 끝없이 이어지는 우울한 소식에 침울해 있던 문단 인사들은 모처럼 만의 화기에애한 화제가 있던 이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시인 박형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작가 박범신을 처음 문단에 내보낸 문학평론가 정규용을 비롯 소설가 송하춘, 양귀자, 정찬, 정도상, 전성태. 시인 이시영, 안도현, 이문재, 남진우. 평론가 황현산, 백승철, 박철화, 손정수 등 동료 및 후배 문인들이 참석해, 선생의 문단 데뷔 30주년 및 신작출간을 축하했다.

잔칫집 마당처럼 시종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행사는 박범신 씨의 등단 30주년을 정리한 슬라이드가 상영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선생의 유년시절부터 학창시절, 문단에 갓 데뷔했던 시절의 사진, 그가 쓴 육필 원고들, 신문 기사 및 광고들을 수집해 제자들이 만든 슬라이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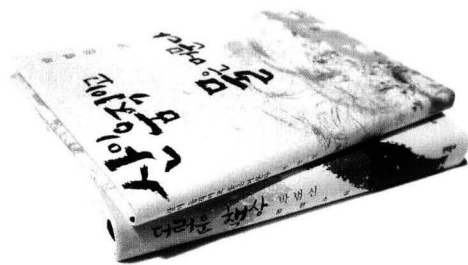
작가는 침묵 속에서 감회어린 눈빛으로 감상했다. 그의 충혈된 눈 위로는 작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싶었다. 작가는 답사에서 자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단 30년 생활을 ‘성질 더러운 년과 살림살이를 한 기분’이라고 고백했다.

“끝없이 성질을 부리고 괴롭히는 여자와 살림을 하는 동안 집어치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신세벽 마지막 원고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느끼는 몇 번의 오르가즘 때문에 계속 이 생활을 해온 거지요.” 진솔하면서도 특유의 진한 비유가 섞인 그의 답사에 행사에 참석한 동료 및 후배 문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동료 및 후배들로부터 ‘영원한 청년작가’로 불리는 박범신 씨는 사실, 문단에서는 극적인 입지전을 가진 작가에 속한다. 그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강경여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무명시절을 보내다가 198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쓰면서 일거에 대중적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라선다. 그 시절을 가리켜 선생은 “소설이 많이 읽히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던 선생은 1993년 갑자기 절필을 선언한다. 몸은



행사장 곳곳을 돌며 동료 및 후배 문인들과 정담을 나누는 박범신 씨. 행사장 입구에서는 최근에 낸 박범신 씨의 시집을 무료로 배포했다.



비틀어 짜도 단 한 문장도 쓸 수가 없다고 당시 소설을 연재 중이던 신문사 기자를 만나 고백하고는 용인의 한터산방에서 칩거를 시작한 것.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다. 명지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이후 삼 년여의 침묵을 깨면서 다시 작품활동을 시작, 도저한 예술적 감응력을 갖춘 작품들을 발표해 문단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2001년 김동리문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이날 선생은 거니하게 취한 얼굴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동료 및 후배들에게 문학과 함께 한 자신의 삶을 들려주느라 바빴다. 그리고 반주에 맞춰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도 불렀다.

《더러운 책상》과 《산은 움직이고 물은 머문다》 한편 문단 데뷔 30주년에 맞춰 펴낸 소설 《더러운 책상》은 신작 장편소설로서는 《침묵의 집》 이후 4년 만의 신작이다. 이 소설은 쉰여섯 살의 내가, 열여섯에서 스무 살의 나인 '그'에 대해, 그리고 현재의 나에 대해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자전적 성장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주인공은 타락한 이곳을 낙원이라 일컫고 이곳에서의 더럽혀진 삶을 행복이라 칭하는 위선의 세상에서 '피 같은 단 한 편의

작품'을 꿈꾼다. 그것은 문학에 목숨을 걸었던 지난날을 '울부짖는 짐승'의 시절로 기억하는 바로 작가 자신의 모습이다.

장편소설 《더러운 책상》이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젊은 날의 맹렬했던 혼돈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함께 펴낸 시집 《산은 움직이고 물은 머문다》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유가 가득하다. 소설을 쓰는 중에도 틈틈이 시를 써온 작가에게 첫 번째 시집이 되는 이 시집의 발문은 선생과 같은 해에 등단한 '문단 동기' 시인 김승희가 썼다. 그녀는 발문에서 "불과 몇 행 안 되는 짧은 시에 아주 넓고도 높고도 깊은 것들을 한 방으로 응축해 놓고 있다"며 선생의 시적 자질을 치켜세운다.

한눈 팔지 않고 우직하게 외길만 걸어온 작가 박범신의 여유와 기백은 이날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갱신과 탈바꿈이 혼한 이 시대, 과연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경각의 울림으로 작용했다. **한겨레**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